건설 · 교통 연구 개발 사업의 관리 및 평가 업무 지휘

이재옥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초대 원장

" 건설 기술 연구 개발 강화로 ' 기술 한국 '의 초석을 "

" 건설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설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설립되었지만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건설 기술의 발전을 위한 핵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초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초대 원장으로 취임한 이재옥 전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평가원이 국내 건설 기술 개발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선진국의 67 %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건설 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해외건설 시장에서 경쟁력의 핵심인 설계 · 엔지니어링 능력 향상에 대한 연구 개발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재옥 원장은 국내 건설 기술 수준이 연구 개발비의 투자액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연구 개발 예산은 총 5조 1,58 3억원이었는데 건설 교통 분야는 64 9억원으로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예산의 1.3 %에 불과한 실정이다. 민간 부문의 연구 개발 사업비도 저조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재옥 원장은 200 0년 기업 부문의 총 연구 개발 투자는 10조 4,66 9억원으로 매출액의 2.0 %인 반면 건설 기업의 연구 개발 투자 비율은 1.3 %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공공 및 민간 부문 공히 건설 부문의 연구 개발 투자가 저조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건설 기술의 연구 개발이 왜 이처럼 취약했을까? 이재옥 원장은 연구 개발 사업을 수행해 온 정부 기관의 구조적인 문제를 꼽는다. 건설 교통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 사업의 경우 그동안 관련 연구 기관에서 수행하였는데 자기가 연구한 내용에 대해 스스로 관리를 하면서 평가까지도 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이 미약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연구 관리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임으로써 연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설립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특히,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등은 이미 독립적인 연구 개발 사업의 관리 · 평가 기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건설교통 분야의 평가원 설립은 때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옥 원장은 건설 교통 기술의 수요 조사 · 분석 및 예측, 건교부 연구 개발 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 지원, 연구 개발 사업의 기획 · 평가 · 관리와 성과 활용 촉진 등이 향후 평가원의 주요 업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 도입 기술 관리 등 건설 기술 정보의 수집 · 분석 · 제공, 그리고 건설 교통 신기술 심사 및 지정 등도 평가원에서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는 40 0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만큼 연구 개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별로 전문가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옥 원장은 건교부 재직 시절 고위 관료로는 드물게 공학을 전공하였다. 이번에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초대 원장으로 선임된 것도 그의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평소 건설 기술이 다른 산업의 기술과 비교해 공공성의 특성이 강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건설 기술의 연구 개발 성과는 품질 개선은 물론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부실을 방지하여 대형 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그는 " 이런 특성으로 인해 건설 기술의 연구 개발 사업은 국가 및 공공 기관에서 주도해야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평가원이 세계 9위의 시장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CJ

김희경 · 기자 · khk@cerik.re.kr